다 공해서 내가 없다면 병도 모든 게 다 붙을 게 없어요

☞ 21면에서 계속

앞서고 그러는데, 그것은 자기가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물건을 얼마짜리 샀으면 그뿐인데 그것을 되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라고, 장사치마냥. 또 장사치한테 물건을 사러 가는 거마냥.

그러나 사러 가지 않고 물건을 달라지도 않고 무주상 보시를 한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 와서 시주를 하고 정성을 들이고 이러는 것도, 자기가 잘되고 못되고, 받아 가고 안 받아 가고 그러기 이전에 자기가 여기까지 왔고 마음이 내켜서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일체 신이 다 알 수 있는 일이고 또 삼라만상 법계에서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자기 마음이 아니까, 그것을 꼭 받아 가려고 안 해야, 무주상 보시로 들어가야 무주상으로 나한테 오지, 가게에 뭐 사러 가는 거 모양으로 내가 가지고 가면 꼭 받아 와야만 직성이 풀리고, 이런 기복으로만 나간다면 우리는 참된 진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 정성을 들였는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고 유감으로 돌아서는 사람도 있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자기 이 사대 오온이 다 공한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보시걸랑은, 우리도 지금 몸뚱이를 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다 다른 이름이지만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움죽거리면 한 몸이 다 움죽거리게 되지요. 그렇듯이 이 우주도 우리가 한생각 하고 돌아가는 대로 이 전체가 다 움죽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로 배워서 말을 잘한다고 해도 몸이 떨어지면 입도 떨어지고 입이 떨어지면 말도 떨어질 것을 어째서 말로 그냥 한데 떨어뜨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만법귀일이라는 그 뜻이, 내 마음이, 내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렇게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만법을 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법을 응용하는 데도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움죽거리는 게 다 내 한마음에서 항상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없다면 만법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만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여러분이 다 공해서 내가 없다면 병도 모든 게 다 붙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익도 밑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도리를 알면 여러분이 '아하, 이 법당에서 나가면 참 햇볕이 짱짱하고 이 법당에 들어오면 여기가 좀 볕이 들어오지 않는구나!', 이 손바닥을 이렇게 젖히면 '아, 이건 손바닥이구나!' 이렇게 젖히면 '이건 손등이로구나!' 이걸 역력히 알게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대로 내가 화두요, 내가 근본이요, 내가 바로 만법을 응용하는 내 주인공이라는 얘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자기가 길잡이가 되고 자기가 길잡이에 의해서 움죽거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공한 이 도리가 나와 더불어 같이 앉았을 때는 같이 또 둘이 아닙니다. 말을 한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순간 듣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과 나와 같이 앉아서 한바탕 같이 방귀 뀐 셈입니다, 방귀. 누가 했는지 누가 들었는지 방귀 뀐 거와 같으면서도 방귀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도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그거 하치않게 이렇게 나오는 말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치않은 거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한 사람도 있었거든, 조주 스님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왜 없다고 했고 있다고 했느냐. 없다고 한 것도 아니 되고 있다고 한 것도 아니 된다면…. 그러면 없다고 하는 거는 없는 대로 공에 치우쳤고 또는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실에 치우쳤으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내가 화두요, 내가 근본이요, 내가 바로 만법을 응용하는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자기가 길잡이가 되고
자기가 길잡이에 의해서 움죽거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도2(여) 매이지 않고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큰스님 뭘요?

신도2(여) 있고 없고에 매이지 않고 걸리지 않는다고요.

큰스님 그거는 말담이 거기에 정확하게 들지를 못했어요. 매이지 않는 것은 공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이 생활에 걸리지 않고 공으로 돌아가는 데 걸리지 않는다는 것, 생활에서 걸리지 않는다는 거뿐입니다. 거기에 또 그 환경에 의해서 약간의 다른 말담이, 즉 말 한 사이 없이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사람이 누구나가 다 이 도리를 모르니까. 바로 그것은 세울 게 없는 겁니다. 끄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인과가 없다' 하는 데서 그건 없다고 해서도 아니 되고 있다고 해서도 아니 되기 때문에 인과에 끄달리지 않는다고 해야만이 대답이 되겠는데, 없다고 해서 오백 세를 그렇게 지냈답니다. 그러니 그 말끝에는 그 말이 옳지만 그 말끝에는 그 말이 옳지 않죠. 옳지 않은 것도 없는 그 도리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겁니다.

사람사람이 누구나가 다 말로 선문답을 하는 것도 있고 말없이 어떤 사람이 "야, 지금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까 석불을 가리키면서 저 부처님이 부처님이라고, 석존께서는 저렇게 계시다고, 이날까지 살아 계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색만 보고 취하는 일이지 진가를 모르는 일들이죠. 항상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죠? 법당에 들면 법당에 드는 대로 그 모습과 내 모습이 둘이 아니요,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니 항상 여여하게, 여여하다는 말 함부로 쓰지 말고, 내가 숨 쉬고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그대로 여여함이라고요. 한 치도 끊어지지 않고,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그냥 이렇게 여여하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점이요.

만약에 사량으로써 끊는다, 망상이 들어오니까 끊는다 한다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끊는 게 아니라 공해서 내가 억겁을 거쳐 오면서 살던 습에 의해서 내 머리에 자꾸 떠오르는 건데, 그러면 자기 살던 인연을 다 끊을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용광로에 넣듯이 다 맡겨 놓는다면 바로 그것이 녹아서 다시 생산이 돼서 계발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오늘 질문하시고요. 잠깐 끝내렵니다. (잠시 사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치않은 생활이라고 하지만 하치않은 게 아닙니다. 생활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주의 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달나라에 갔다 오고 위성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첨단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첨단의 능력을, 만법의 능력을 자기가 계발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할 뿐입니다.

선문답이니 말담이니 설법이니 하는 것도 이 모두가 알고 보면 도깨비장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전부 살아나가는 것이 도깨비장난이기 때문에 도깨비 같은 말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발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쩝니까? 여러분이 모르면 나도 모르고 여러분이 알면 나도 아는 거지 어떡합니까.

지금 저 해 좀 보십시오. 우리가 지붕을 해 놨으니까 여기는 볕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면 저렇게 다 고르게 비춰지고 있네요. 하여튼 가만히 보면 일 년 이태 삼 년 이만치 극성스럽다는 소리 듣고 "참 안하무인이야, 날마다 그냥…."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라야 그때부터는 됩디다. 어딘가 모르게 좀 눈을 뜨게 되고, 파란 눈을 뜨게 됩디다.

질문자(여) 인간 관계에 있어서요, 모나지 않고 그냥 둥글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큰스님 그래 아까 둥글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사대가 공했고 오온이 다 공했어요. 사대가 따로 있고 오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대와 오온이 다 더불어 같이 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듯이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체가 다 한데 공했다는 얘깁니다. 부처님 말씀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니라." 이렇게 한 것은 보이는 색신이 다, 고정된 관념으로서 생각하는 것도 없고 고정되게 듣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으니 아주 역력하게 밝고 검고 하면서도 그렇게 전부 공했느니라 이거야.

공했으면서도 역력하니라 이거야. 자는 건 자고 깨는 건 깨는 거다. 높은 건 높고 얕은 건 얕은 거다. 그건 왜냐?

여러분이 안방에서 가만히 앉아서 테레비를 볼 때가 있고 안방마님이 될 때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나오셔서 빨래도 하고 쓰레질도 하고 이럴 때는 남의 집 식모거든. 그러면 그 양면의 일을, 거칠고 어지러운 일을 할 때도 있고 내가 잘 빼입고 안방마님으로 나갈 때도 있고 그런 양면의 일을 전체 한 분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분이 하는데도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없거든.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게 없거든. 여러 가지 다 하는 것을 두고 만법귀일이라고 그랬어요. 만법을 하면서도 그 한마음 속에서 나가. 그래서 그 한마음 속에서 하는 일들이 한마음으로 들어. 그러니 한마음으로 든다면 그 한마음조차도 내세울 게 없는 것이 부처니라. 왜? "무(無)" 했던 거는 없어서 무가 아니라 너무 역력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돌아가는 것도 없고 돌아오는 것도 없기 때문에 무라고 했고 공이라고 했지, 없어서 무라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금방 문지방 넘어서고 금방 넘어오고…. 여러분이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만날 때는 금방 여러분이 아내의 생각을 하면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여보, 난 당신 사랑해."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금방 그 자리에서 비켜났는데 애들이 들어와서 "엄마!" 했습니다. 금방 마음이 달라져서 "애, 그래." 엄마로서 자식에게 말을 합니다. 생각도 그럭하고 행동도….

그럼 이거는 없어서 "무" 했던가요? 너무 그렇게 찰나찰나 역력하게 있기 때문에 "무"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공입니다. 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이자 공이다. 공이면서도 색이고 그렇게 공했으면서도 바로 참너는, 너를 세울 게 없는 너가 돼야 되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이해만 해서도 아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모든 것은 공에서 나오는 거 공에다 놔라 이겁니다. 믿고. 그렇게 역력한 내 주인공이, 주인공이라고 세울 것도 없는 그 주인공은 그렇게 역력하게, 남편 만날 때는 만나고 자식 만날 때는 만나고 그렇게 일 단도리를 잘해 나가는 내가 그대로인데, 항상 나를 떠나서 딴 데서 찾고 맴돌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믿고 거기다 의지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자식에게 믿고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오히려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나갈 길을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경향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만 하면 됐지 무슨 기대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 사랑이지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주면 저절로 둘이 아니기에 마음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행동도 전달을 했기 때문에, 또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 행동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지요. 그러면 스스로서 마음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산울림 울리듯 전달이 또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서 그렇게 돼야지 내가 타의에다 믿고 의지를 하고, 또 타의에서 잘못했다 잘했다 하고 아웅다웅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썽이 많으니까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연결돼서 얽히고설킨다면 아마도 우리가 윤회에서 거듭거듭 걸려서 세세생생에 끄달리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우선적으로 그렇게 놓고 돌아가는 방법, 자기가 공했으니까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가 다시 맡겨 놓고 믿고 물러서지 말라 이겁니다. (이후 생략)

※위 법문은 1986년 3월 1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